

# 아나키즘에서의 개인주의

에리코 말라테스타

1897

## 차례

아나키즘에서의개인주의 . . . . .	3
개인주의에대한첨언 . . . . .	4

## 아나키즘에서의개인주의

우리가이글을쓰는것은불쾌한활동에대한정당화수단으로스스로를개인주의자라고자칭하는자나경찰과공중질서·부르주아지와도덕·정의의관계와유사한정도의관계를아나키즘과맺고있는자들에대해이야기하려고하는것은아니다.

또한이글은“수단적으로개인주의적인”동지들, 즉, 오늘날의투쟁에서개인적인행동을선휴하거나이에전적으로의존하는동지들에대해이야기하려는것도아니다. 이동지들은개인적행동이더효과적이라고생각하고, 어떠한조직도, 집단적합의도개인의자유를제약한다고보기에이방식을택한다. 이동지들의전술적, 원칙적문제에대해서는조직에대한문제를다룰때이야기하도록하겠다.

이글에서우리는철학으로서, 인간사회의본질에대한총체적이해로서, 개인과그룹의관계로서개인주의를다루고자한다. 이러한개인주의는우리동지들중일부가(때로는스스로인지하지도못한채)보여주고있다.

개인이완전한물리적, 도덕적, 지적발전이가능하다고믿고, 개인의가장큰행복을성취하는데있어사회가장애물이아니라도움이라믿는다는의미에서스스로를개인주의자라부르는사람들도있다. 하지만이러한측면에서우리를모두개인주의자라부르는데는아무런문제가없다. 우리가스스로를그렇게자칭하지않는이유는, 우리는다른중요한것들을더많이바라보고있기에개인주의자라고자칭하는것은호란일뿐이기때문이다. 앞서말한측면에서우리는아나키스트나사회주의자임과동시에개인주의자이기도하다. 그리고다른모든학파나당도마찬가지다. 개인만이유일하게지각과의식이있는존재이며, 우리가즐거움이나고통, 자유나예속, 권리, 의무, 정의등을이야기할때, 우리는살아있는개인에대해서만떠올리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때로개인주의는단지단순히언어의문제이며전혀중요한것이아니다. 하지만간혹개인주의를받아들이는이와그것을회피하는사람사이에실질적이고중대한차이가발생하곤한다. 이두집단의궁극적인목적은같을지라도실질적인결과물은크게다를수있기때문이다. 이중하나를흘겨보며반동이라고취급할이유는없다. 아나키스트들의“철학”에빠지려하던그순간부터이처럼혼란스러운개념과언어들이튀어나와앞뒤도, 우리가동의하는지아닌지도알수없게만들어버렸기때문이다. 하지만우리가스스로에게잘설명하는것은긴급한문제라하겠다. 이로써우리가특정동지들의활동전체를사로잡아실질적선전작업에해가되게하는추상적관념으로부터벗어날수있을것이다.

개인주의적아나키스트들이말하고쓴모든것을엄밀히검토한후, 우리는그들의논리에두가지함축적이고상호모순적인관념이공존한다는것을발견했다. 이는확연히드러나지는않지만, 심지어스스로를개인주의자라고부르지않는아나키스트들의사상에서도서로다른모양새로계속튀어나온다.

첫번째로, 이들은사회가스스로온전하며스스로자족할수있어서스스로의이익을제외하고는함께할이유가없고, 사회가제공하는이익이사회가희생을요구하는개인적자유보다작으면언제든떠날수있는자치적개인의총합이라고바라본다. 간단히말해서이들은인간사회를모든주주들이자유롭게가입하거나탈퇴할수있는주식회사처럼바라본다. 오늘날소수개인들이모든부를독점하고있는상황에서그들은나머지가사회와사회속승자들에의해규정된규칙을따르도록강제된다고말한다. 하지만만약토지와노동의수단을모두가자유롭게사용할수있다면, 만약인민들이특정계급의조직된힘이강제하는예속으로떠밀리지않는다면, 이익을주지않는사회에누구도남지않을것이라는것이다. 그리고사람의물질적필요가충족되면, 그는자유에대한필요를최우선으로여길것이고, 개인의의지를조금이라도희생하게끔하는모든형태의공존은거부될것이다. 이들은‘네가원하는것을하라’는말을가장협소하고절대적인행동의정언명령으로받아들인다.

그리고개인주의자들은절대적이고무제한적인자유를가진자치적개인의존재를상정하면서, 이해관계의충돌이나다양한열망이등장하면갈등이발생한다고말한다. 이갈등에서누군가는승리하고, 누군가는패배할것이며, 이렇게우리는사라졌어야할압제와착취의세계로돌아오게된다.

때문에누구보다도모두의복리를갈망하는개인주의적아나키스트들은모두의영구한복리와개인의불가침의자유라는두원칙사이의논리적비약을메우기위한방법이필요했다. 그리고그들은다른원칙을들고나온다. 자연법에따른조화가그것이다.

네가원하는것을하라. 하지만그들은실제로는불가변적이고자연적으로, 개인이오직다른이들의동등한자유를침해하지않는만큼만원하는것을할것이라고본다.

한친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자유는, 인간의 모든 시설 위에 펼쳐지는 우리의 자유는, 다른 이의 자유를 결코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만의 궤도를 따라 공전하는 별들과 같이, 개인은 스스로의 자유를 추구함에 있어서 다른 이의 자유와 겹치지도, 이를 통한 혼란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이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생리학을 천문학으로 대체하여, “식물과 동물에서 세포들이 공감적 응집”을 이룬다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수정의 결정을 이야기 한다. 이렇게 이들은 자연과학 전체를 통틀어 이야기 한다. 그리고 이들 중 누구도, 기형의 수정이, 생존 투쟁이, 우주적 재앙이, 질병이, 유산이, 재앙과 상처의 집합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부조화와 이해관계 충돌은 현존기구의 결과물이다. 국가를 파괴하라. 거래와 금융과 화폐 주조의 완전한 자유를 존중하라. 토지의 소유권이 경작의 무에 귀속되게 하라. 아니면 자급자족적 농업을 하라. 우리에게 자유로운, 완전히 자유로운 경쟁을 허하라 (터키 학파의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생산성과 입지에 따른 가치 차이 인지 대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고, 경쟁은 자연의 축복을 모두가 가장 현명한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sup>1</sup>

코뮌주의 학파의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들 (형용 모순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것이 존재한다)은 국가와 사적 소유를 파괴하면 모든 것은 잘될 것이라 말한다. 모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합의 할 것이다. 노동은 생리학적으로 필요하기에 모두는 노동할 것이다. 생산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즐거운 일을 한다면 부지불식간에, 의도하지 않더라도, 모든 개인은 자신이 필요 한 정확히 그 일을 할 것이기에 규칙도 합의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가장 아래에서부터 살펴보면,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은 단순히 조화주의와 섭리주의의 일종에 불과하다.

우리가 보기에도, 개인주의가 함축하고 있는 원칙들은 완전히 틀렸다.

개별적인 개인은 사회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오히려 사회의 산물이다. 하지만 사회가 없다면 개인은 결코 약만적 동물성에서 벗어나 인간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고, 사회 밖에서 인간은 빠르게 원시적 동물 상태로 돌아갈 뿐이다.

입센이 쓴 『인민의 적 An Enemy of the People』의 주인공 인스토크 만박사가 대중이 그를 이해하거나 따르지 않는 데에 짜증을 내며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고고히 살아간다”고 말할 때, 그는 완전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는 아나키스트라고 받아들여지는데도 말이다. 만약 스토크만이 타인보다 더 지식이 있고, 타인보다 생활에 더 여력이 있다면, 그것은 스토크만이 사회의 이득을 취하여 현재와 과거의 인간들과 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오히려 사회에 더 종속되는 것인데 말이다.

사회 안에서 인간은 자유로울 수도, 예속될 수도 있다.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떠나 인간은 사회에 남아야 한다. 그것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맥락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간은 관념적이고 불가능한 자율성을 갈망하는 대신, 그 자유와 행복의 근거를 동료 인간들과의 합의에서 찾아야 하고, 타인과 함께 자신에게 알맞지 않은 사회적 기구를 조정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식적이고 분명한 행동 없이도 자연스럽게 확립되는 조화를 상정하는 자연 법에 대한 믿음은 허황되고 사실에 반한다.

국가와 자유재산이 없어 진다고 하더라도, 조화는 자연스럽게 오지 않는다. 자연이 인간의 축복과 불운에 매달린다 해도 결국 그 축복과 불운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니 말이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해했다면, 우리는 이를 짧게 이야기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독자들이 우리 문건이 너무 길다고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렇다면 다음이 시간에.

## 개인주의에 대한 첨언

지난호에서 우리는 조화주의 (자연법칙이 모든 것을자동으로 최선으로 만들 것이라는 신념) 가 개인주의자들의 사상의 기저이며, 이것이 그들의 따뜻하고 감상적인 모두의 행복에 대한 추구를, 개인이 절대적 자유를 누리며 타인과 탐험할 필요도 없는 사회라는 이상과 어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밝혔다.

진실을 말하자면 조화주의 적요소는, 아니, 낙관적 숙명론의 요소는 모든 아나키즘과 현대 사회주의의 각 분파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하며 서로 부딪힌다. 이는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 살아남은 종교적 관념의 잔재이기도 하다. 이는 부르주아 특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익의 조화를 말한 경제학자의 영향이기도 하다. 이는 자연과학의 인기에 기인하기도 한다. 또한 이는 문제를 예쁘고 단순하게 만들어 선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욕망의 산물이기도 하다. 또한 어려움을 마주하고 해결하는 것보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모두의 실수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귀결하는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자들에게는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이 그 오류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이 소위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조화라는 것은 오직 다음과 같은 것을 강조한다.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는 그 존재의 필요 충분 조건이 만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연에는 목적이 없다. 아니, 최소한 인간적인 목적은 없다. 자연은 인간의 죽음, 상처, 고통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 그리고 이 죽음, 상처, 고통 역시 자연적 “조화”的 구성 요소다. 고양이가 쥐를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주적 질서와 완전히 조화롭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쥐에게 물어본다면, 쥐가 그 질서를 좋아하겠느냐는 말이다. 모든 생명체는 먹어야 하기에, 생명의 수와 힘은 각종에 따른 음식의 양에 따라 제한된다. 하지만 자연은 이 한계를 재앙으로, 기아로, 퇴화로 집행한다. 무수히 많은 예시를 들 수도 있다.

자연이 예술보다 우월하다 주장하기 위해, 샤를 푸리에<sup>2</sup>는 이제는 고전이 된 해괴한 비유를 들고 나온다. 서로 다른 색의 구슬로 꽃병을 채우고, 그 꽃병을 훈들고, 책상 위에 부으면, 그 어떤 화가가 만들 수 있는 것보다 아름다운 색의 조화를 볼 수 있을 거라는 말이다.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서 티치아노의 《성모승천》을 그릴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는 아름다움을 얻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한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이다.

자연이 섭리로서의 제공자로서 존재하는 신비로운 법칙이 모든 것을 인간의 입맛에 맞게 제공할 것이라는 것은 잠시만 자세히 들여다 봐도 우스운, 모든 근거와 모순되는 것이다. 숙명론은 그것이 우리를 추동하는 동기들과 모순되더라도, 어쨌든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낙관적 숙명론은, 지적인 운명이 인간의 복리를 신경 쓴다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화의 법칙이 있다면 왜 그 법칙은 지난 수 세기를 미적거리다가, 우리가 아나키를 주장하는 순간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가?

국가와 사적 소유는 오늘날 사회적 적대감의 최대 요인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국가와 사적 소유는 자연 법칙이 기적적으로 작용하여 태어난 것이고, 기존의 적대감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만약 국가와 사적 소유가 파괴된다 하더라도 인민이 이들을 만들어 낸 갈등을 조정할 다른 방향을 정착시키지 않는다면,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이해관계와 열망의 부딪힘은 현존하며 앞으로도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만약 현존하는 갈등들이 충분히 제거되고 자율적 합의가 등장한다면 하더라도 다른 갈등이 뒤이어나와 싹틀 것이다. 누군가에게 새로운 욕망이 생겼을 때, 그 동료들의 생각이 즉각 변화하여 그의 욕망을 충족 시킬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 모든 새로운 생각이다른 모두에게 환영 받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모든 새로운 생각이 옳을 것인가? 더 이상 누구도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아니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다양성이 부족해서 각 개인간의 차이를 억누르고, 모든 개인이 수학적 정체성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다시 말하겠지만, 이러한 끔찍한 단일성은 오직 인간적 구조에만 속하는 것이다. 자연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양성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공허한 장광설은 그만두자. “모든 개인의 자유에는 제약이 없지만, 타인의 자유와 충돌하지도 않는다”고 말할 때, 이것은 숭고하고 사회 진화에 있어 가장 완벽할 이상에 대한 확인이다. 하지만 이상이 아닌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현상에 대한 이야기라면, 혹은 이러한 이상이 단지 현존 기구를 파괴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단순히 추상적 관념으로 현실을 부정하는 오류가 될 것이다. 우리가 프롤레타리아로서, 피통치 대중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억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미루어 두자. 그렇다면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이 많겠지만, 그것이 타인을 불쾌하고 불편하게 한다면 하지 말아 달라. 우리는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포기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 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타인들이 서로 다른 취향과 필요가 만족될 때 더 즐거울 것이다. 우리의 자유는 언제나 타인의 자유에 의해 제약된다.

그리고 우리는 “취향과 사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기초적 필요를 충족하는 것에서 조차 자연스러운 갈등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모두의 선선이라는 관점에서 해결하는 것은 인간의 과제다. 누군가가

른 사람에게서 빼앗아야만 얻을 수 있는 음식을 갈망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가 이미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채워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식량을,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 생산을 해야 한다.

이것이 각자의 환경에 의해 각자가 원하는 대로 생산하면 자연스럽고 합의 없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것은 끔찍한 실망만을 낳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집행을 방해하고, 타인의 결정에 의존해야 하는 상태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는 노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노동이 건강에 유익하고,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유기적 필요가 있기에 모두 노동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사실 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은, 운동의 필요에 따른 생산량이 자연스럽게 필요 생산량에 맞을 것이고, 인간이 자발적으로 생산수단이 결정하는 조건에 적응할 것이라는 전제다. 만약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일만을 하고,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일이 잘 돌아간다고 한다면 필수적인 잡무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누가 잡무를 하고 싶어 하겠는가. 누군가는 합의를 통해 이 일을 해야만 한다.

토지가 거주민들을 풍족하게 먹이고, 노동이 즐거움이나 최소의 노력으로 조직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직이 필요하다. 모두가 임의로, 스스로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타인이 하는 것에 신경쓰지 않고, 협력하거나 집단적 작업에 포괄되는 것 없이 노동한다 하더라도, 모든 일의 끝에서 우리는 수많은 날알과 더 많은 기계와 신발과 아티초크가 생산되는 것을 바라보리라……. 이것이 신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결론을 짓자. 인간은 사회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합의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자발적으로, 자유로운 협약을 통해 이루어져 모두의 행복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힘으로, 소수에 의한 강압으로 이루어져 이를 강요한 자들의 사적이익을 위한 착취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두의 행복을 위한 자유롭고의지적인 협동이 아나키다. 특정 계급의 이득을 위한 강요된 협력은 권위주의 체제다.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에리코말라테스타  
아나키즘에서의개인주의  
1897

Complete Works of Errico Malatesta, Volume III, ed. Davide Turcato

[kr.theanarchistlibrary.org](http://kr.theanarchistlibrary.org)